

선지서 해석

저자: 리차드 프랫 2 세 (Th.D., Harvard)

역자: 이창배 (Ph.D., UCLA)

번역 후원: Ankur Lee-Vakil (Son-in-law)

제 8 강

발전하는 종말론



THIRD MILLENNIUM

MINISTRIES

Biblical Education. For the World. For Free.

© 2012 by Third Millennium Ministries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for profit, except in brief quotations for the purposes of review, comment, or scholarship,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Third Millennium Ministries, Inc., 316 Live Oaks Blvd., Casselberry, Florida 32707.

Unless otherwise indicated all Scripture quotations are from the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Copyright © 1973, 1978, 1984, 2011 International Bible Society. Used by Permission of Zondervan Bible Publishers.

ABOUT THIRD MILLENNIUM MINISTRIES

Founded in 1997, Third Millennium Ministries is a non-profit Evangelical Christian ministry dedicated to providing:

Biblical Education. For the World. For Free.

Our goal is to offer free Christian education to hundreds of thousands of pastors and Christian leaders around the world who lack sufficient training for ministry. We are meeting this goal by producing and globally distributing an unparalleled multimedia seminary curriculum in English, Arabic, Mandarin, Russian, and Spanish. Our curriculum is also being translated into more than a dozen other languages through our partner ministries. The curriculum consists of graphic-driven videos, printed instruction, and internet resources. It is designed to be used by schools, groups, and individuals, both online and in learning communities.

Over the years, we have developed a highly cost-effective method of producing award-winning multimedia lessons of the finest content and quality. Our writers and editors are theologically-trained educators, our translators are theologically-astute native speakers of their target languages, and our lessons contain the insights of hundreds of respected seminary professors and pastors from around the world. In addition, our graphic designers, illustrators, and producers adhere to the highest production standards using state-of-the-art equipment and techniques.

In order to accomplish our distribution goals, Third Millennium has forged strategic partnerships with churches, seminaries, Bible schools, missionaries, Christian broadcasters and satellite television providers, and other organizations. These relationships have already resulted in the distribution of countless video lessons to indigenous leaders, pastors, and seminary students. Our websites also serve as avenues of distribution and provide additional materials to supplement our lessons, including materials on how to start your own learning community.

Third Millennium Ministries is recognized by the IRS as a 501(c)(3) corporation. We depend on the generous, tax-deductible contributions of churches, foundations, businesses, and individuals.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ministry, and to learn how you can get involved, please visit www.thirdmill.org

선지서 해석

제 8 강 발전하는 종말론

목차(Contents)

I. 서론(Introduction)	1
II. 모세의 종말론(Mosaic Eschatology)	2
A. 언약의 주기들(Covenant Cycles)	2
B. 언약의 정점(Covenant Culmination)	2
III. 이른 선지자들의 종말론(Early Prophetic Eschatology)	5
A. 모세와 비슷한 사항들(Similarities to Moses)	5
B. 모세에 추가한 사항들(Additions to Moses)	6
1. 왕권(Kingship)	6
2. 성전(Temple)	7
3. 이방인들(Gentiles)	8
IV. 늦은 선지자들의 종말론(Later Prophetic Eschatology)	10
A. 예레미야의 기대(Jeremiah's Expectation)	11
B. 다니엘의 통찰(Daniel's Insight)	12
C. 최종 전망들(Final Outlooks)	14
1. 처음 소망들(Initial Hopes)	14
2. 마지막 소망들(Final Hopes)	15
V. 신약의 종말론(New Testament Eschatology)	16
A. 용어(Terminology)	16
1. 복음(Gospel)	16
2. 나라(Kingdom)	19
3. 말세(Latter Days)	19
B. 구조(Structure)	20

1. 세례 요한(John the Baptist)	20
2. 예수님(Jesus)	20
C. 주제(Themes)	21
1. 추방(Exile)	21
2. 회복(Restoration)	22

VI. 결론(Conclusion) 23

선지서 해석(He Gave Us Prophets)

제 8 강 발전하는 종말론(Unfolding Eschatology)

I. 서론(INTRODUCTION)

내가 자라날 때 나의 가족은 늘 자동차로 휴가를 가곤 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를 염두에 두었고 그 목적지에 도착하곤 했다. 그러나 여행을 하는 동안 예상하지 않은 다른 일들이 일어나 원래 계획이 달리 전개되기도 했다. 우리는 예상보다 조금 더 오래 한 곳에 머물기도 했고, 타이어에 펑크가 나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비슷한 일들이 구약의 예언에도 일어났다. 하나님은 인간 역사의 모든 것에 대한 주권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은 그것의 목적에 도달할 것이고, 그 과정의 모든 단계는 하나님에 의하여 주권적으로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간들이 예언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사람들이 한 방식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한 방식으로 반응하실 것이고, 사람들이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도 그에 따른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실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운명, 곧 종말이 성경 전반에 걸쳐 발전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진전되어 감에 따라 자기 백성을 위해 하시려는 일을 점점 더 많이 계시하셨다.

이번 강의의 제목은 “발전하는 종말론”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은 마지막 때 혹은 종말론에 관한 선지자들의 비전이 예언 사역의 다양한 단계를 통해 어떻게 발전했는지 살펴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말론이 점점 발전하는 과정에서 늘 기억해야 하는 네 가지 중요한 단계를 살펴볼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모세의 종말론을 살필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이른 선지자들의 종말론을 살필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늦은 선지자들의 종말론을 살필 것이다. 넷째로, 우리는 신약의 종말론을 살필 것이다. 그럼 먼저 모세 자신으로부터 유래한 종말론의 관점을 살펴보자.

II. 모세의 종말론(MOSAIC ESCHATOLOGY)

여러분은 정말 힘든 시기를 겪어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을 버티게 해 준 유일한 것이라곤 그 힘든 시기가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는 믿음밖에 없던 적이 있는가? 여러 면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그런 종류의 관점을 주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심지어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는 정말 힘든 시기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모세는 또한 그들에게 언젠가는 상황이 훨씬 더 호전될 것이라는 소망, 곧 종말론적 소망도 주었다. 이러한 모세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이전 강의들에서 이미 살펴본 언약의 기본적인 역학적 원리의 일부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언약의 주기들을 살피고 다음으로 언약의 정점을 살필 것이다.

A. 언약의 주기들(COVENANT CYCLES)

여러분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충성을 시험하실 것이고 자기 백성이 자주 실패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심판과 복의 주기들이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의 관계를 특징지을 것이라고 가르쳤다.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반역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자연계와 전쟁을 통한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께 참으로 충성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자연계와 전쟁에서의 복을 받았다. 복과 저주 사이의 이 주기적인 언약의 패턴은 구약 전반에 걸쳐서 여러 번 나타난다.

B. 언약의 정점(COVENANT CULMINATION)

모세의 책에 나오는 종말론은 복과 저주라는 이 기본적인 패턴에서 발전했다. 모세에 의하면, 언약의 심판들과 복들이 어느 곳이나 어느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 않은 채 영원한 주기로 계속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와 정반대로, 모세는 미래의 명확한 끝인 종말을 바라보았다. 모세가 언약의 삶의 정점인 종말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그의 역사관에서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요소는 국외 추방이고, 둘째 요소는 회개와 용서이고, 셋째 요소는 국외 추방으로부터의 회복이다.

첫째로,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질수록 심판이 증대될 것을 내다보았다. 이러한 심판의 증대는 약속의 땅으로부터 이스라엘이 국외로 추방되는 것으로 그 절정에 이를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고, 약속의 땅에서 자연의 조화는 자연의 부패로 바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 나라로 흩어질 것이고, 약속의 땅은 황폐한 상태로 남아 있을 것이다. 신 4:25-28 에서 모세가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들어보라.

(신 4:25-28 개역개정)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흠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끔찍한 국외 추방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을 본다. 그러나 이 국외 추방이 아무리 끔찍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역사의 끝이 아니다. 회개와 용서는 국외 추방의 상황을 바꿀 수 있다. 신 4:29 에서 모세가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들어보라.

(신 4:29)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국외 추방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백성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한 다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구할 수 있다.

이 회개와 용서의 결과는 무엇인가? 한 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국외 추방으로부터의 회복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상상할 수조차 없는 언약의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가르쳤다. 신 4:30-31 에서 모세가 언약의 복의 정점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들어보라.

(신 4:30-31 개역개정)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 날에[마지막 날에/말일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신 4:30 에서 모세는 이 마지막 회복의 시기에 대한 전문적인 용어를 새로 만들었다. 그는 국외 추방 이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말일/말세/종말/마지막 날/끝날”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표현의 배후에 있는 히브리어는 **בְּאַחֵרֵי הַיָּמִים** [브아하리트 하야뎀]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종류의 용어는 단순히 정해지지 않은 “미래”를 의미했다. 그러나 여기 신 4:30 에서는 이 용어가 “종말”, 곧 “역사의 정점”을 뜻하는 전문 용어로 사용되었다. 이 용어가 전문적으로 사용된 것은 사 2:2; 미 4:1; 호 3:5 등을 포함한 선지서의 여러 곳에 나온다.¹ 신약에서 동일한 표현이 행 2:17; 히 1:2; 약 5:3 등에 나온다.² 사실상 마지막 일들 혹은 마지막 사건들을 연구하는 “종말론”이란 신학적인 용어는 바로 이 표현에서 유래된 것이다.

우리는 모세의 종말론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심각한 죄에 빠지고 본국으로부터 추방될 것을 알았다. 그러나 백성이 본국에서 쫓겨나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말일에 곧 종말에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 엄청난 복을 받을 것이다. 모세의 이러한 기본적인 전망은 선지자들이 기대한 전체 역사에 대한 배경을 제공하였다.

매우 간단한 모세의 종말론을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는 구약의 이른 선지자들의 종말론을 살펴보려고 한다. 바벨론 유수 전의 선지자들은 말일에 정점을 향해 나아가는 역사의 움직임을 어떻게 보았는가?

¹ [역자 주] 사 2:2; 미 4:1; 호 3:5 에 나오는 히브리어는 모두 **בְּאַחֵרֵי הַיָּמִים** [브아하리트 하야뎀]이다. 개역개정본은 이 세 구절에 똑같이 나오는 히브리어 어구를 각각 “말일에,” “끝날에,” “마지막 날에”라고 번역했다.

² [역자 주] 이 히브리어 어구를 반영하는 신약 성경의 헬라어 어구와 개역개정본의 번역은 행 2:17 “말세에” *ἐν ταῖς ἐσχάταις ἡμέραις*; 히 1:2 “이 모든 날 마지막에” *ἐπ’ ἐσχάτου τῶν ἡμερῶν τούτων*; 약 5:3 “말세에” *ἐν ἐσχάταις ἡμέραις* 이다.

III. 이른 선지자들의 종말론(EARLY PROPHETIC ESCHATOLOGY)

이번 강의에서 이른 선지자들의 기대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다니엘의 때까지 사역했던 선지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 다니엘 시대까지의 선지자들은 모세 자신의 관점과 매우 비슷하게 보이는 기본적인 종말론적 관점을 갖고 있었다. 우리는 이른 선지자들의 종말론의 두 가지 측면, 곧 모세의 종말론과 비슷한 사항들과 모세의 종말론에 추가한 사항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럼 먼저 이른 선지자들의 종말론이 모세가 확립한 기본 패턴과 비슷한 사항들을 살펴보자.

A. 모세와 비슷한 사항들(SIMILARITIES TO MOSES)

모세는 국외 추방에 이르는 민족적 심판 다음에 회개를 통하여 큰 회복에 이르는 패턴을 제시했다. 첫째로, 구약의 이른 선지자들은 많은 시간을 다가오는 국외 추방을 경고하는 데 보냈다. 둘째로, 다니엘 이전의 선지자들은 모세를 따르며 회개와 용서가 포로기 중에 일어날 것이라는 소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사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포로기 중에 자기 백성의 남은 자들을 초자연적으로 새롭게 하시고 그들에게 용서를 베푸실 것이라고 믿었다. 사 10:20 에서 이사야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사 10:20 개역개정)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와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는 유배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에 충실하고 순종하는 새로운 마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렘 31:33 에서 우리는 유배자들에 관한 다음과 말씀을 읽는다.

(렘 31:33 개역개정)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른 선지자들은 유배된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를 기대했다.

셋째로, 이른 구약의 선지자들은 또한 회개하는 남은 자가 이스라엘의 본토로 돌아와 큰 회복을 얻을 것이라고 확언했다. 다시 한 번 이사야의 말은 요점을 찌른다. 사 44:21-22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사 41:21-22 개역개정)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뺏뺏한 구름 같이, 네 죄를 안개 같이 없이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른 선지자들은 모세의 기본적인 종말론이 참되다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밝혔다. 이스라엘은 국외 추방을 당할 것이고 회개와 용서를 통해 본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이른 선지자들은 또한 이 기본적인 모세의 패턴에 몇 가지 특별한 사항들을 추가했다.

B. 모세에 추가한 사항들(ADDITIONS TO MOSES)

간단히 말하면, 모세와 이른 선지자들 사이의 기간에 한 중대한 언약 사건이 일어났다. 물론, 이 언약은 다윗과 맺은 왕정 언약이다. 그 결과로 이른 선지자들은 모세의 초기 종말론, 곧 말세에 대한 묘사에 세 가지 중요한 사항을 추가했다. 첫째로, 그들은 왕권에 초점을 맞추었다 둘째로, 그들은 성전에 초점을 맞추었다. 셋째로, 그들은 이방 민족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럼 먼저 이른 선지자들이 왕권에 대하여 어떤 관심을 가졌는지 살펴보자.

1. 왕권(Kingship)

한편으로, 이른 선지자들은 모세와 달리 나라가 패배와 자연 재해를 겪을 것이라고만 말하지 않았다. 이 선지자들에 의하면, 다윗의 보좌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는 다윗 보좌의 유기도 포함될 것이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사 39:5-7 에서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꾸짖을 때 말한 다윗의 보좌에 관한 심판의 말씀을 읽는다.

(사 39:5-7 개역개정)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 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
또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의 보좌의 유기는 하나님 백성의 역사를 정점에 달하게 한 국외 추방의 한 측면이었다.

다윗의 보좌에 대한 심판의 비극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또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보좌를 영원히 끝나게 하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확신시켰다. 오히려 선지자들은 국외 추방 후에 이스라엘의 회복에는 다윗의 보좌가 큰 영광으로 회복되는 일도 포함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렘 23:5-6 에서 예레미야가 다윗의 보좌의 회복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들어보라.

(렘 23:5-6 개역개정)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다윗의 의로운 아들에 대한 약속은 말일의 회복의 묘사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이렇게 이른 선지자들은 다윗의 보좌에 관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2. 성전(Temple)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침범할 수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많았다.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담대하게 말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는 성전이 결코 파괴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강하게 비난했다. 예레미야서 7 장에서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이 거짓된 가르침을 믿지 말라고 경고했다. 렘 7:4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렘 7:4 개역개정)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와 그의 성전이라, 여호와와 그의 성전이라, 여호와와 그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호와의 참된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국외 추방 때에 하나님의 성전도 파괴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또한 포로기가 끝나고 회복기에 영광스러운 성전이 재건될 것도 약속했다.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도 에스겔은 회복기에 이 영광스러운 성전이 재건될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에스겔서 40-48 장은 이 주제에 집중하고 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회복기 성전의 특별한 그림을 주셨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다. 겔 43:10-11 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라.

(겔 43:10-11 개역개정)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 . .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이른 선지자들은 다윗의 보좌와 성전에 대한 관심을 추가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아주 분명하게 말하지 않은 세 번째 관심사도 추가했다. 그것은 이방인들에 대한 그들의 관심이었다.

3. 이방인들(Gentiles)

첫째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국외 추방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방 민족들의 승리를 의미한다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알았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앗수르인들과 바벨론인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심하게 학대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스라엘의 포로기 동안 승리가 이방인들에게 주어지지만, 이른 선지자들은 또한 이방인들의 우위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도 분명하게 말했다. 포로 생활로부터 벗어나는 회복기에 하나님께서는 회복된 다윗의 보좌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학대했던 이방인들을 치실 것이다. 이 주제는 선지서 전반에 걸쳐서 여러 모양으로 나오지만, 그것이 전면에 나오는 가장 극적인 모양은 전문적인 어구인 히브리어 יָמֵי מֶלֶךְ [욘 아도나이] 곧 “여호와의 날”로 표현된다. 이 어구 배후에 있는 기본 사상은 여호와께서 단 하루

만에도 모든 적을 물리치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여호와의 날”은 그분께 속한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승리한 군인들이 오늘날에도 전쟁에 나가면서 “이 날은 우리의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아주 흡사하다.

이 용어는 이스라엘의 포로기와 이스라엘의 회복기 사이의 대조를 수립할 정도로 매우 강력하다. 이것을 확인해 볼 가장 좋은 방법은 아마도 선지자 요엘이 “여호와의 날”이란 어구를 사용한 방식을 살펴보는 것일 것이다. 이 어구는 요엘서 1:15; 2:1; 2:11; 2:31; 3:14 등에 나온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처음 세 번의 언급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언약 백성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국외로 추방하실 날이었다.

그러나 요엘은 또한 그의 책의 후반부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는 방식도 바꾸었다. 그는 또 다른 사건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묘사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이 유배지에서 풀려날 때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압제했던 나라들을 멸망시키는 날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욥 2:31-32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욥 2:31-32 개역개정)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 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요엘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본토로 돌아오는 때 일어날 큰 전쟁을 가리키는 날이었다.

이스라엘의 종말론에서 이방인들에 관한 주제를 떠나기 전에, 우리는 마지막 한 가지 요소, 곧 이방인들의 접붙임을 통한 이스라엘의 확대를 언급해야 한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 “여호와의 날”이 이방인들에게 불리하게 다가올 때, 모든 이방인들이 다 멸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 전쟁이 끝나면,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에게로 와서 한 분, 참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사 2:2-3 에서 이사야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사 2:2-3 개역개정) 말일에 여호와와 그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그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와 그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 구절을 포함한 많은 구절들이 구약의 이른 선지자들의 예언에 나오는 종말론적 소망의 정점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어질 것이지만, 이러한 복에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접붙여져 참 믿음을 갖는 일이 포함되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온 땅을 덮을 정도로 확대될 것이다. 이 장엄한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한 세계가 될 것이다. 평화가 땅에 임하고, 남아 있는 모든 민족이 참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른 선지자들이 모세가 제시한 기본적인 패턴을 따랐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들은 국외 추방이 올 것이지만 회개와 용서를 통해 종말, 곧 큰 회복이 있을 것임을 믿었다. 이 기본적인 패턴에 이른 선지자들은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을 추가했다. 그들이 추가한 첫째 주제는 다윗의 보좌의 중심성이고, 둘째 주제는 성전의 중요성이고, 셋째 주제는 이스라엘의 국외 추방과 하나님 백성의 큰 회복에 있어서 이방인들이 맡게 될 매우 특별한 역할이었다.

모세의 종말론의 기초 사항 그리고 이른 선지자들의 종말론의 유사 사항과 추가 사항을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늦은 선지자들의 종말론의 발전 사항들을 탐구해보자.

IV. 늦은 선지자들의 종말론(LATER PROPHETIC ESCHATOLOGY)

다른 강의들에서 우리는 개입되는 역사적 속발 사건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여러 면에서 늦은 선지자들에게서 우리는 구약의 개입되는 역사적 속발 사건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을 만난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반응이 말일, 곧 종말이 전개되는 방식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문제를 검토하면서 우리는 세 가지 주제를 다룰 것이다. 첫째로 다룰 주제는 예레미야의 기대이고, 둘째로 다룰 주제는 다니엘의 통찰이고, 그리고 셋째로 다룰 마지막 주제는 구약 선지자들의 최종 전망이다. 그럼 먼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제기한 특별한 기대를 살펴보자.

A. 예레미야의 기대(JEREMIAH'S EXPECTATION)

대부분의 면에서 예레미야는 성경의 이른 선지자들의 패턴을 따랐다. 그러나 두 단락에서 예레미야는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것을 추가했다. 그는 포로기의 기간이 70 년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렘 25:11-12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렘 25:11-12 개역개정)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칠십 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칠십 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이와 비슷하게 렘 29:10-11 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렘 29:10-11 개역개정) 바벨론에서 칠십 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70 년이 되면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을 본다.

실제로, 대하 36:21-22에 의하면, 이 예언은 스룹바벨의 인도 아래 주전 539 년에 일차 귀환민들이 본토로 돌아왔을 때 성취되었다. 스가랴도 역시 속 1:12 과 속 7:5 에서 이 연대를 시인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레미야가 포로 생활이 70 년 동안 지속될 것을 예언했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다. 주전 539 년에 바사의 황제 고레스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라고 공포하였다.

예레미야의 70 년에 대한 기대를 염두에 두고, 우리는 종말론에 대한 다니엘의 새로운 통찰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B. 다니엘의 통찰(DANIEL'S INSIGHT)

아마도 다니엘이 예언에 기여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니엘 9 장에 나오는 칠십 이레에 관한 그의 유명한 환상일 것이다. 이 단락은 고레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칙령을 내린 주전 539 년경에 다니엘이 얻은 통찰에 대한 자서전적인 설명이다.

다니엘서 9 장은 1 절에서 3 절까지의 서론으로 시작한다. 여기서 다니엘은 그가 70 년의 포로 생활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을 읽고 있었다고 전한다. 단 9:2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단 9:2 개역개정)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 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칠십 년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포로기는 오직 70 년밖에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알았다. 그러나 단 9:3 은 우리의 예상과 달리 다니엘이 기뻐하는 대신 매우 다른 일을 행했다고 우리에게 말해준다.

(단 9:3)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낯을 향하고 기도와 간구로 애원했다.

우리가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말한 70 년이 지난 것을 기뻐할 줄로 기대한 것과 달리, 그는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님께로 낯을 향하고 하나님의 호의를 구했다.

단 9:4-19 에서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요약은 볼 수 있다. 이 기도에서 그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다룬다. 예레미야가 말한 70 년이 다 되었으나 백성은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 단 9:13-4 에서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단 9:13-14 개역개정)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니엘은 우리가 이번 강의의 앞에서 살펴본 것을 이해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설 때만 포로 생활이 끝나고 본토 귀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여기에 예기치 않은 역사적 속발 사건이 개입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유배 생활을 하였지만, 여전히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종말을 전개하시는 방식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다니엘은 자비를 간청하는 것으로 그의 기도를 끝마쳤다. 백성이 그들의 반역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백성을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했다. 단 9:17-18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단 9:17-18 개역개정)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모든 소망에 역행하며 다니엘은 그분의 백성이 죄를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길 바랐다.

다니엘서 9 장의 나머지 부분, 곧 단 9:20-27 은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 가지고 다니엘에게 나타난다. 단 9:24 에서 그는 다니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단 9:24 개역개정)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흔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간단히 말하면, 가브리엘은 포로 생활이 예레미야가 말한 칠십 년으로부터 칠십 년의 “칠” 배(일흔/칠십 이레), 곧 약 49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말한다. 그 백성이 회개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포로 기간을 일곱 배로 더 늘리기로 결정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레 26:18 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난 것이다.

**(레 26:18 개역개정)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일곱 배나
더 징벌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연기하셨고 약속의 땅의 지배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 올 때까지 한 이방 제국에서 또 다른 이방 제국으로, 또 다른 제국으로, 그리고 또 다른 제국으로 계속해서 넘어가게 되었다.

예레미야가 칠십 년의 포로 기간에 대해 예언한 것과 다니엘이 그것이 일곱 배나 더 늘어나서 490 년 정도가 될 것임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종말론의 최종 단계를 살펴보려고 한다.

C. 최종 전망들(FINAL OUTLOOKS)

구약의 예언의 최종 단계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이후의 회복기 동안 일어났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 구약의 종말론이 어떤 모습을 띠는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사항을 고찰할 것이다. 첫째 사항은 회복기 초기의 소망이고, 둘째 사항은 회복기 말기의 소망이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그룹의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후 초창기에 사역했던 선지자들의 처음 소망을 고찰해보자.

1. 처음 소망들(Initial Hopes)

이 시점에서 우리는 주전 539 년에서 주전 515 년까지의 회복기의 초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시기에 소그룹의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큰 복들이 귀환한 하나님 백성에게 빨리 쏟아지는 것을 보려는 희망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왔다. 여러 면에서 그들은 회개하고 여호와를 충성스럽게 섬김으로써 다니엘이 받은 바 490년으로 늘어난 기간이 단축되기를 소망했다.

학개와 스가라는 다윗의 보좌의 회복, 이방 나라들에 대한 승리, 성전의 재건, 자연계의 갱신 등 네 가지 종말론적 소망에 초점을 맞추었다. 학개와 스가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소망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그 당시 하나님 백성의 신실함이 새로 형성된 나라에 많은 복을 가져오길 바랐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국으로 돌아온 후 초기에 스룹바벨과 성전에 대한 소망이 매우 높았을지라도, 이 상황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는 회복기의 후기에 소망이 다른 방향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스룹바벨은 학개와 스가가가 그에게 일러준 대로 성전을 완공했지만, 스가라서의 후반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말라기서 등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모습만 갖고 있었다.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이 만연하고 배교가 만연한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 이로 인해 후포로기의 초기에 품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큰 소망들은 먼 미래로 밀려나고 말았다.

2. 마지막 소망들(Final Hopes)

말라기는 이 먼 소망에 어느 늦은 선지자보다도 더 집중했다. 그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날카롭게 꾸짖으며 미래에 심판과 복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예를 들면, 말 3:1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말 3:1 개역개정)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리고 말 4:1-2 에 나오는 그의 마지막 말을 통해 말라기는 그 큰 미래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말한다.

(말 4:1-2 개역개정)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 . .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구약 성경이 마감되면서 이 구원이 빨리 다가오지 않는 것이 분명해졌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완전한 회복을 기다려야만 할 것이었다.

우리는 구약의 종말론이 모세로부터 시작되었고 이른 선지자들이 왕권과 성전에 대한 주제들을 추가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많은 통찰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는 다니엘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들이 포로 생활이 오랫동안 연장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도 살펴보았다. 그런 다음에야 하나님의 큰 개입하심이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회복을 가져다줄 것이었다. 이 사실은 자연스럽게 성경의 종말론의 마지막 단계인 신약의 종말론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V. 신약의 종말론(NEW TESTAMENT ESCHATOLOGY)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구약의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신약의 저자들의 관점을 따라야 한다. 신약의 저자들은 구약 안에서의 종말론의 발전을 이해했지만 여기에 예수님 사역의 실상을 추가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말론이 발전하는 방식에 변화를 일으키셨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신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관점을 따라야 한다. 종말론에 대한 신약의 묘사는 세 가지 주제를 고려할 때 파악될 수 있다. 그 첫째 주제는 신약에 나오는 몇 가지 핵심적인 용어들이고, 둘째 주제는 신약의 종말론의 기본 구조이고, 셋째 주제는 신약에 나타난 중요한 종말론적 주제들이다. 그럼 먼저 종말에 대한 신약의 관점에 관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신약의 몇 가지 중요한 용어들을 살펴보자.

A. 용어(TERMINOLOGY)

우리는 특별히 중요한 세 가지 어구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첫째는 “복음”이란 단어이고, 둘째는 “나라”라는 용어이고, 셋째는 “말세/말일”이란 표현이다.

1. 복음(Gospel)

“복음”이란 단어는 모든 신자에게 잘 알려져 있다. 그것은 “좋은 소식”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 [유앙겔리온]에서 파생되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좋은 소식”, 곧 “복음”을 전파한 사실을 거듭거듭 말하고 있다. 신약의 저자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기독교 메시지를 좋은 소식, 곧

복음으로 100 번 이상 말하고 있다. 신약 성경이 “복음”이란 단어를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오히려 신약의 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복음”이란 용어를 입수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히브리어 단어 [바싸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많은 경우에 “좋은 소식” 혹은 “기쁜 소식”으로 번역되었다.³ 그들이 염두에 둔 좋은 소식은 무엇이었는가? 한 마디로 말하면, 선지자들이 선언한 좋은 소식은 포로기가 끝나고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예를 들어, 사 52:5-7 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어떻게 말했는지 들어보라. 사 52:5-6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사 52:5-6 개역개정)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 . .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자기 백성이 그분의 능력의 큰 과시를 보게될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그래서 그 백성은 포로 생활에서 회복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음을 알게될 것이다. 이러한 회복의 확신을 숙고하며 이사야는 사 52:7 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 52:7 개역개정)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⁴

³ [역자 주] 어근 **בָּשַׂר**[바싸르]는 24 번 사용되었고 피엘 어간과 히파엘 어간으로만 사용되었다. KB(163)에 의하면 피엘 어간에서 “(좋은) 소식을 가져오다, 선언하다” 등의 의미를 갖고 피엘 분사 **מְבַשֵּׂר**[므바세르]는 “좋은 소식의 전달자”란 의미를 갖는다.

⁴ [역자 주] 사 52:7

MT: **מֵה־נְאוּוֹ עַל־הַקְּרִיִּים רָגְלֵי מְבַשֵּׂר מְשֻׁמֵּעַ שְׁלוֹמַם מְבַשֵּׂר**
:וב מְשֻׁמֵּעַ שְׁלוֹמַם אָמַר לְצִיּוֹן מְלֶךְ אֱלֹהֶיךָ:

LXX: ὡς ὥρα ἐπὶ τῶν ὀρέων, ὡς πόδες εὐαγγελιζομένου ἀκοὴν εἰρήνης, ὡς εὐαγγελιζόμενος ἀγαθά, ὅτι ἀκουστήν ποιήσω τὴν σωτηρίαν σου λέγων Σιών·

이사야는 어떤 사자들의 등장이 보기에 절대적으로 아름다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어떤 종류의 사자들인가? 그들은 좋은 소식, 곧 “복음”을 가져오는 사자들이다.

“복음”이란 단어에 대한 이러한 선지서 배경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수님은 포로 생활에서 회복을 가져오셨다. 눅 4:18-19 에서 예수님은 사 61:1-2 을⁵ 인용하셨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셨다.

(눅 4:18-19 개역개정)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⁶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단락이 밝혀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포로 생활에서 회복을 가져온 자로 보셨다.

신약에 나오는 두 번째 용어도 동일한 관점을 드러내는데, 그것은 “나라”라는 용어이다.

βασιλεύσει σου ὁ Θεός. = Brenton: as a season of beauty upon the mountains, as the feet of **one preaching glad tidings** of peace, as **one preaching good news**: for I will publish thy salvation, saying, O Sion, thy God shall reign.

⁵ [역자 주] 사 61:1

MT: וְיְהוָה יְגַדְלֵנוּ וְיִשְׁמַחֵנוּ וְיִשְׂמַחֵנוּ וְיִשְׂמַחֵנוּ
 וְיִשְׂמַחֵנוּ וְיִשְׂמַחֵנוּ וְיִשְׂמַחֵנוּ וְיִשְׂמַחֵנוּ
 :וְיִשְׂמַחֵנוּ וְיִשְׂמַחֵנוּ

LXX: Πνεύμα Κυρίου ἐπ’ ἐμέ, οὗ εἵνεκεν ἔχρισέ με· εὐαγγελίσασθαι πτωχοῖς ἀπέσταλκέ με, ἰάσασθαι τοὺς συντετριμένους τὴν καρδίαν, κηρύξαι αἰχμαλώτοις ἄφεσιν καὶ τυφλοῖς ἀνάβλεψιν, = Brenton: The Spirit of the Lord is upon me, because he has anointed me; he has sent me **to preach glad tidings** to the poor, to heal the broken in heart, to proclaim liberty to the captives, and recovery of sight to the blind;

⁶ [역자 주] 눅 4:18 Πνεῦμα κυρίου ἐπ’ ἐμέ, οὗ εἵνεκεν ἔχρισέν με εὐαγγελίσασθαι πτωχοῖς, ἀπέσταλκέν με κηρύξαι αἰχμαλώτοις ἄφεσιν καὶ τυφλοῖς ἀνάβλεψιν, ἀποστεῖλαι τεθραυσμένους ἐν ἀφέσει,

2. 나라(Kingdom)

신약 성경은 자주 신약 시대를 그 나라의 시대로 요약했다. 왜 이 용어가 신약에서 그토록 두드러졌는가? 나라라는 용어는 신약이 예수님께서 포로 생활에서 회복이란 소망을 성취하셨음을 인정하는 또 다른 방식이었다. 다시 한 번 사 52:7 에서 이사야가 포로 생활에서 회복이 다가올 것을 예언한 것을 들어보라. 거기서 그는 복음과 하나님의 통치를 다음과 같이 연관시켰다.

(사 52:7 개역개정)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이 마지막 말은 하나님 백성의 회복과 세상에 대한 그들의 승리를 선언한다. 이러한 선언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배경을 제공한다. 예수님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회복이 자신에게서 왔음을 선언하셨다.

세 번째 표현인 “말세/말일”이란 용어도 역시 우리가 종말에 대한 신약의 관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3. 말세(Latter Days)

여러분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포로기 이후의 시기를 묘사하기 위해 말세/말일이란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신약의 저자들은 신약 시대를 묘사하기 위해 동일한 표현을 사용했다. 예를 들면, 행 2:17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행 2:17 개역개정)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라

반복해서 신약의 저자들은 신약 시대 전체를 종말, 곧 말세라고 언급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이 구약 선지서의 용어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신약 시대를 선지자들의 기대의 정점, 곧 하나님 백성의 회복으로 보았다. 신약에 나오는 이 중요한 용어들은 신약의 저자들이 그들의 시대를 구약의 종말론적 소망의 성취로 보았다는 것을 알려준다. 한 마디로 말하면, 인간 역사의 마지막 단계가 그리스도를 통해 온 것이다.

B. 구조(STRUCTURE)

신약의 종말론에 대한 이러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우리는 신약 성경이 회복의 왕국에 대하여 보여주는 기본 구조를 살필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 종말론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관점을 검토하기 위해 우리는 신약에 묘사된 두 가지 기대를 살펴볼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세례 요한의 기대를 살필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기대를 살필 것이다. 그럼 먼저 세례 요한의 관점을 살펴보자.

1. 세례 요한(John the Baptist)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매우 보편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 요한은 구약을 읽으면서 메시아가 오면 단번에 그 나라를 가져오실 것이라고 믿었다. 눅 3:16-17 에서 요한이 메시아에 관하여 어떻게 말했는지 들어보라.

(눅 3:16-17 개역개정)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 . .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요한도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날 때 그것은 즉각적인 복과 심판의 때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2. 예수님(Jesus)

갑작스러운 마지막 심판과 복에 대한 구약의 이러한 기대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의 상당 부분을 그의 제자들에게 종말이 요한과 다른 사람들이 기대한 대로 오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데 할애하셨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서서히, 오랜 시간을 들여 이루시기로 결심하셨다고 설명하셨다.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새로운 계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아마도 마 13:31-35 에 나오는 두 가지 비유일 것이다. 거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큰 나무로 자라는 작은 겨자씨에 비유하셨다. 그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서서히 빵을 부풀리는 누룩에 비유하셨다. 이 두

비유의 요점은 회복의 나라가 심판과 복으로 단번에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대신 그 나라는 성장을 통해 단계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르친 종말론에 대한 신약의 관점은 개시된 종말론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 개시된 종말론은 여러 가지로 묘사되어 왔지만, 그것을 삼중 구조로 보는 것은 도움이 된다. 첫째로, 예수님의 초림은 그 나라의 시작이다.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 승천, 오순절, 그리고 사도들의 사역은 종말의 기초, 곧 시작을 형성했다. 신약에 따르면 회복의 두 번째 단계는 그 나라의 지속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이다. 회복의 세 번째 단계는 나라의 완성이 묘사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은 선지자들이 아주 오래 전에 약속한 총만한 분량의 회복을 가져오실 것이다. 신약 전체는 이러한 개시된 종말론의 기본 구조에 잘 들어맞는다.

C. 주제(THEMES)

몇 가지 핵심적인 용어와 신약의 관점의 기본 구조를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구약에 나올 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나오는 종말론의 몇 가지 주제를 다루려고 한다. 두 가지 주요한 주제들, 곧 추방의 주제와 회복의 주제를 살펴보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1. 추방(Exile)

먼저 추방의 주제를 고려하라. 여러분은 구약의 추방 주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전쟁과 자연계를 통한 심각한 심판을 가지고 그분의 백성을 위협하셨던 사실과 다름없음을 기억할 것이다. 이러한 추방 주제는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개시, 지속, 절정의 구조에 따라 조정된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지상 사역 기간 동안 그분의 나라를 시작하셨을 때 그분은 자주 언약 백성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셨다.

추방 주제는 또한 하나님 나라의 지속과도 연관되어 있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영적으로 추방되는 심판은 메시아를 섬기기를 거부하는 아브라함의 육적 자녀들에게 계속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들에서 배제되어 있다. 다른 한편으로, 똑같은 일이 유형 교회로 들어오는 이방인들에게도 적용된다. 신약은 출교로 절정에 이르는 교회의 권징이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반역할 때 심판하에 추방되는 방식이었음을 거듭 밝혀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약은 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영원한 추방이 일어날 것이라고 가르친다. 그리스도는 재림하실 때 배교자들을 심판하시는 자리에 앉으시고 그들을 새 하늘과 새 땅의 복에서 벗어나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러한 식으로 우리는 추방 주제가 신약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 성취는 하나님 나라의 개시, 지속, 완성의 단계에 따라 이루어진다.

물론, 신약 성경이 추방의 주제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신약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회복의 복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온 것도 가르치고 있다.

2. 회복(Restoration)

구약의 선지자들은 말일에 하나님께서 전쟁과 자연계에서의 복을 자기의 백성에게 한량없이 내리실 것이라고 가르쳤다. 신약은 이 회복의 복들도 역시 그리스도의 나라의 세 단계에 따라서 온다고 가르친다.

첫째로, 그 나라의 개시 기간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특징짓는 많은 회복의 주제를 발견한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윗의 보좌가 다시 세워질 것이라고 말한 그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왕”으로 불린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일에 성전이 재건될 것이라고 말한 그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시다. 선지자들이 악과 이방 나라들과 그들의 신들에 대한 큰 승리를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은 사탄과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심으로써 그분의 백성을 위한 승리를 시작하셨다. 구약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큰 유업을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 유업의 보증이신 성령님을 보내셨다. 그리고 말할 필요조차 없지만, 선지자들이 자연계에서의 큰 복에 관하여 말한 그대로,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을 통해 수많은 육적인 치유를 행하셨다. 신약은 예수님의 초림이 하나님의 복을 향한 마지막 큰 회복의 시작이었다고 가르친다.

둘째로, 이러한 회복의 주제는 또한 그 나라의 지속 기간, 곧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우리 시대를 특징짓는다. 선지자들이 다윗의 자손에 대하여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서 계속

통치하고 계신다. 그리스도의 몸은 종말의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구약의 환상들의 성취이다.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린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이길 것이라고 말한 그대로, 교회는 악에 대한 영적 전투를 하며 승리를 거둔다. 성령님은 우리의 온전한 유업의 보증으로서 교회 안에 계속 거주하신다. 게다가 기독교인들은 육적인 치유와 다른 특별한 섭리 행위로 자기 백성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복을 자주 경험한다.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면에서 신약은 회복의 큰 약속들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지속되는 동안 성취되고 있음을 밝히 보여준다.

셋째로,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회복의 복을 내리기 시작하셨고 계속 내리고 계시는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완성으로 구약에 약속된 모든 회복의 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가르친다. 선지자들이 다윗의 자손이 모든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의 왕권은 온 세상으로 확장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 전체를 하나님의 한 성전으로 다시 만드심으로써 새로운 성전에 대한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이 시대의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악에 대한 완전한 승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새로운 피조 세계의 충만한 유업을 받을 것이다. 물론, 자연계도 구원의 영광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낙원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점점 더 회복의 예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나라를 완성에 이르게 하실 때 성취될 것이다.

VI. 결론(CONCLUSION)

발전하는 종말론에 관한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에 대한 기대들이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이른 선지자들과 늦은 선지자들을 거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발전했는지 살펴보았다. 이 과정의 각 단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정점에 대한 그분의 계획을 점점 더 많이 계시하시는 것을 살펴보았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추방의 심판에 관하여 말한 것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신약의 관점에서 이것을 보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개시, 지속, 완성(곧 절정)이란 각 단계에 언약 파기자들에게 대한 추방이 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회복의 미래 복에 관하여 말한 것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항상 이러한 복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개시, 지속, 완성이란 각 단계에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런 관점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신약의 저자들과 예수님 자신의 눈으로 구약의 예언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